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무기간 경력에 따른 직무수행도와 중요도

박선희¹⁾ · 강현숙²⁾ · 현경선²⁾ · 김원옥²⁾ · 석소현¹⁾ · 이지아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의 간호경력은 간호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환자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간호경력이 많은 간호사일수록 업무상 실수의 빈도가 감소되며, 간호대상자의 낙상 빈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mmittee on the Work Environment for Nurses and Patient Safety [CWENPS], 2004). 또한, Yoo (2000)의 연구에 따르면, 경력이 많은 간호사에 비해 신규간호사는 3교대와 같은 근무환경 및 대인관계보다는 간호행위와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근무기간경력이 짧은 신규간호사일수록 간호사들의 간호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였으며, 간호전문인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hamian & Inhaber, 1985). 학사학위를 소지한 간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Fero, Witsberger, Wesmiller, Zullo와 Hoffman (2009)의 결과에서도 근무기간 경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능력 적용 능력이 뛰어났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기간 경력은 임상업무 수행 능력 및 환자 사망률과 역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ourangeau, Stone, & Birnbaum, 2003). 이처럼 간호사의 근무기간경력이 간호의 질 차이를 유발하고 환자의 건강수준 및 질병예후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WENPS, 2004), 간호사의 근무기간에 따른 간호의 질 차이를 최소화하고 적정수준의 환자간호 능력의 습득 및 적용을 통하여 일정수준의 간호 질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직무 능력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경력 수준에 따른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하지만, 간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간호 직무 수행도와 중요도 수준에 관하여 중환자실, 정신과 병동, 내외과 병동 등의 영역별로 실시해왔다(Choi, Kim, & Park, 2003; Lim et al., 2004; Lim et al., 2006). 그 결과, 선행 연구결과를 간호사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경력수준의 차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무기간 경력 수준별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근골격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Lim 등(2006)의 연구에서는 간호직무 수행도보다는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력징후 측정·분석 및 투약관련 직무가 간호업무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신과 간호사의 경우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간호사 집단에 비하여 10년 이하의 경력 간호사 집단에서 간호업무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간호중재 영역 중 안전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간호직무 능력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다양한 간호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근무기간경력 수준에 따른 직무 수행도와 중요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직무 능력의 개선 및 향상에 기

주요어 : 간호, 간호수행평가

1)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

2)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교신저자 이지아 Email: leejia@khu.ac.kr)

접수일: 2010년 4월 21일 1차 수정일: 2009년 7월 15일 2차 수정일: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7일

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기간에 따른 간호의 질 차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간호대상자의 건강회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의 간호사 근무기간 경력별 직무 수행도와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경력수준에 따른 간호직무 수행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사의 경력수준에 따른 간호직무 중요도 차이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 간호사의 근무기간 경력: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란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의미한다(Lim et al., 2006). 경력간호사 집단은 Benner (1984)가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2개의 집단으로 세분화되었다. Benner (1984)는 간호사들은 근무기간 경력 수준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세분화가 가능하고 집단의 수준에 따라 간호업무 능력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각 단계별 세분화를 위한 객관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4단계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대 5년의 경력이 요구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경력수준에 따라 1년 경력 미만의 신규 간호사(Lim et al., 2006), 1년부터 5년 미만 경력 간호사, 5년 이상 경력 간호사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간호 직무수행도: 직무란 개인이 수행하는 비슷한 과업들의 합을 의미하며(Lim, 2002), 본 연구에서는 Yoon 등(2005)이 개발한 686개의 간호사 직무능력 항목들을 간호 직무라 정의한다. 간호 직무 수행도는 해당 항목을 간호사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수행하는지를 의미한다(Lim et al., 2006).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간호 직무중요도: 간호 직무 중요도는 간호사가 해당 직무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Lim et al., 2006).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근무기간 경력수준에 따른 직무 수행도와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단면적인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서울에 소재한 2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모집단(N=1,085)으로 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363명을 편의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실시 전, 본 연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기관 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본 연구대상자 수는 전체 모집단의 33.5%를 차지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2월 한 달간이었으며, 연구자가 연구 실시 전 연구목적과 수집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 도구

● 간호 직무 수행도

간호 직무 수행수준 측정을 위하여, Yoon 등(2005)이 686개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Lim 등(2006)이 나눈 150개 중분류 항목(Lim et al., 2006; Yoon et al., 2005)을 이용하였다. 간호 직무 수행도는 5점 등간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도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진이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다. 간호 직무 수행 도구는 크게 자료수집, 진단 및 계획, 수행, 평가, 윤리의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관찰, 측정, 자료 분석, 간호진단 설정, 검사관련 간호, 진단검사, 투약, 위생관리, 안위간호, 운동 및 활동 증진, 발달촉진간호, 사후간호, 수술간호, 정신요법 제공, 호흡증진, 배설증진, 체온유지, 피부통합 유지, 조직관류 증진, 영양증진, 출산간호, 신생아간호, 안전증진, 입·퇴원 관리, 응급간호, 지지, 교육상담, 의사소통, 시설관리, 인력관리, 방문간호, 병동관리, 감염관리, 면역관리, 환경관리, 추후관리, 평가, 윤리 등의 150개 중 항목으로 나뉜다. 직무수행도 측정은 ‘수행하지 않음’을 1점, ‘한 달에 1회’는 2점, ‘주당 1회’는 3점, ‘하루에 1회’를 4점, ‘하루에 여러 번’을 5점으로 각 항목별로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직무의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중분류 항목은 하위 간호직무 항목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으며, 가능한 값의 범위는 1-5이다.

● 간호 직무 중요도

간호 직무중요도는 간호직무수행도의 동일한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한 값이다. 1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2점은 '중요하지 않음'을, 3점은 '중요함'을, 4점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중분류 항목은 하위 간호직무 항목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으며, 가능한 값의 범위는 1~4이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version 9.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간호사 평균 간호경력, 근무만족도, 근무부서) 파악을 위하여, 각 특성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간호사 근무기간 경력에 따른 3개 집단간 직무 수행도와 중요도 차이 여부는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Elliott, 1995). 경력 수준에 따른 집단간 직무수행도와 중요도 수준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Least Square Distance (LSD) 대비(Contrast)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686개 직무 항목 각각을 개별적으로 분석 및 비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를 통하여 의미있는 결과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중항목 수준에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중항목에 속하는 직무항목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근무기간 경력 수준별로 비교하였다. ANOVA 분석 전, 근무기간 경력에 따라 나뉜 3개 집단간 동질성 검사를 Levene's test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간호사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세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편의표본추출로 인하여,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종합병원들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근무경력의 세분화 과정에서 Benner가 제시한 4단계로의 세분화가 가능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근무기간 경력 수준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나뉨에 따라, 경력이 1년 미만인 신규간호사 집단의 구성원 숫자가 나머지 두 집단의 구성원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분석단계에서 세 집단간 구성원 숫자가 다른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경력별 분석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병동별 특수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근무병동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넷째, 직급별 간호직무 수행도 및 중요도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1	0.28
	Female	361	99.72
Age (Unit: Years)	Less than 30 years of age	223	61.43
	30 to 39 years of age	100	27.55
	More than or equal to 40 years of age	40	11.02
Education	Diploma	168	46.67
	RN-BSN	37	10.30
	BSN	115	31.90
	Master's degree	39	10.83
	PhD	1	0.28
Years of work experience	Less than 1 year	30	8.40
	1 ≤ < 5 years	134	37.54
	More than or equal to 5 years	193	54.06
Job satisfaction	Highly satisfied	2	0.56
	Satisfied	124	34.44
	Average	161	44.72
	Dissatisfied	60	16.67
	Highly dissatisfied	13	3.61
Current work posts	Internal medicine	107	32.3
	General surgery	98	29.6
	Obstetrics and gynecology	20	6.0
	Intensive care units and operating room	78	23.6
	Minor departments (e.g., ENT and ophthalmology)	6	1.8
	Oriental medicine	22	6.6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99.7%가 여성이었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30세 미만이 전체 대상자의 61.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별 분포에서는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가 46.7%로 가장 많았고,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31.9%, RN-BSN 졸업자는 10.3%를 차지하였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경력 비교에서는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4%이고, 1년에서 5년 미만인 경우 37.5%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의 약 절반 정도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근무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44.7%이고 ‘만족’ 수준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근무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중환자실, 수술장,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 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근무기간 경력별 직무 수행도

150개의 중항목의 대부분에서 직무 수행도 수준은 근무기간 경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 경력 수준별로 집단간 직무 수행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항목은 6개 영역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무 수행도 영역은 ‘영양상태 조사하기($F=3.20, p=.042$)’, ‘운동상태 조사하기($F=3.13, p=.045$)’, ‘언어적 행동 관찰하기($F=5.16, p=.006$)’, ‘비언어적 행동 관찰하기($F=5.86, p=.003$)’, 인지상태 관찰하기($F=4.60, p=.011$)’, ‘지지하기($F=3.26, p=.040$)’였다(Table 2). 대영역에서 수행에 속하는 ‘지지하기’는 경력이 1년 미만

인 경우가 가장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으며,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집단의 수행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영역에서 자료수집에 속하는 나머지 5개 중항목들은 1년 미만의 간호 경력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근무기간 경력별 직무 중요도

간호사들은 대부분의 직무관련 중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경력 수준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0개의 중항목들 중 경력 수준별로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은 ‘운동 및 활동 간호($F=3.61, p=.028$)’, ‘수술 후 간호($F=3.32, p=.037$)’, ‘배설 간호($F=3.93, p=.037$)’의 3개 영역이었다(Table 3). 간호직무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3개 중항목들은 대영역에서 모두 ‘수행’으로 분류되며, 신규 간호사 집단에 비하여 5년 이상의 간호경력을 가진 간호사 집단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영역의 간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근무경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직무 중항목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기간 경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관찰과 조사와 같은 ‘사정 영역’에 대한 수행도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환자에 대한 지지’에 대한 수행 수준은 신규간호사 집단보다

Table 2. Performance of Nursing Jobs According to Levels of Work Experience

Domain	Item	Less than 1 year	$1 \leq < 5$ years	More than or equal to 5 years	F	p-value	LSD test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Information collection	Investigating nutrition levels	2.80 \pm 1.45	3.46 \pm 1.46	3.17 \pm 1.38	3.20	0.042	① < ②
	Investigating exercise levels	3.77 \pm 1.15	4.19 \pm 0.97	4.24 \pm 0.92	3.13	0.045	① < ② < ③
	Observing verbal behavior	3.15 \pm 1.33	3.91 \pm 1.18	3.88 \pm 1.24	5.16	0.006	① < ②, ③
	Observing a non-verbal behavior	2.97 \pm 1.34	3.65 \pm 1.23	3.77 \pm 1.16	5.86	0.003	① < ②, ③
	Observing cognition levels	3.42 \pm 1.27	3.97 \pm 1.17	4.10 \pm 1.09	4.60	0.011	① < ②, ③
Implementation	Providing support	3.74 \pm 1.22	3.59 \pm 1.29	3.26 \pm 1.36	3.26	0.040	② > ③

* Standard deviation; ① Less than 1 year; ② $1 \leq < 5$ years; ③ More than or equal to 5 years.

Table 3. Importance of Nursing Jobs According to Levels of Work Experience

Domain	Item	Lower than 1 year	$1 \leq < 5$ years	Greater than or equal to 5 years	F	p-value	LSD test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Assessment and planning	Nursing linked to exercise and activities	2.98 \pm 0.37	3.09 \pm 0.48	3.18 \pm 0.40	3.61	0.028	① < ③
Implementation	Post-operative care	3.23 \pm 0.49	3.28 \pm 0.52	3.40 \pm 0.49	3.32	0.037	② < ③
	Excretion care	3.04 \pm 0.48	3.06 \pm 0.47	3.18 \pm 0.46	3.93	0.037	② < ③

* Standard deviation; ① Less than 1 year; ② $1 \leq < 5$ years; ③ More than or equal to 5 years.

근무기간 경력이 많은 간호사 집단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직무 중요도에서는 경력이 많은 간호사들은 신규간호사들에 비하여 운동, 활동, 수술, 배설과 관련된 간호수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간호진단 과정'과 연관지어 보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간호직무 중항목의 특징은 수행도 측면에서는 조사나 관찰과 같은 '사정' 영역인 반면, 중요도 측면에서는 '수행'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기간 경력에 상관없이 간호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im 등(2006)은 신규간호사의 간호직무 수행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수행수준이 경력간호사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Lim 등(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 집단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사정 영역의 간호업무 및 환자의 운동, 활동, 수술, 배설과 관련된 간호수행 업무는 신규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간호교육 시 대학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내용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Kim, Song, Kim, & Lee, 2004).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력수준에 따른 직무 수행도와 중요도 차이는 간호사들의 근무기간에 따른 적응 또는 업무관련 요인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Chu (2000)는 병원근무기간이 6개월인 8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체험 이해를 위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규간호사들의 임상체험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호소 및 완벽한 간호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현재 상황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 '간호사로서 정체성의 혼돈'의 4개 영역으로 나뉜다. 특히, 신규간호사는 업무수행의 미숙함뿐만 아니라 환자상태에 대한 논리적 추리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Chu, 2000). 본 연구결과에서도 신규간호사들의 사정관련 업무 수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부족할수록 업무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Chu (2000)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Chu (2000)의 연구와 본 연구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간호사 경력 수준에 따라 환자 지지에 대한 수행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이다. Chu (2000)의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들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실제 임상현장과의 괴리감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업무로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신규간호사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장 업무 수행시 정서적 지지 측면의 간호수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간호사들이 간호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을 의미하며, 신규간호

사의 정서적 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환자의 안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경력수준에 상관없이 간호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경력수준을 고려하여 경력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신규간호사를 포함한 근무기간 경력이 짧은 간호사 집단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중재적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간호대학 차원에서 간호수행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최근 교과서 중심의 교육방법에서 나아가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valuation, OSCE),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간호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실습평가 프로그램처럼 임상현장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Park, Jung, & Bae, 2007; Shin, Hur, Park, Song, & Kim, 2007; Yoo, Yoo, & Son, 2003). 둘째, 병원 차원에서 병원 특성을 반영한 개발된 '간호 사정 및 수행'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Chu (2000)뿐만 아니라 Yoo (2000)도 신규간호사가 간호행위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신규간호사들에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병동업무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건강회복 및 안녕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수준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환자나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는 간호대상자의 건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pears, 2008). 유방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치료과정동안 정서적 지지는 대상자들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Kwon, Kim, Lee, & Lee, 2008). 또한, 항암요법을 시작하는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제공한 연구에서도 '지지'가 간호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행 능력, 삶의 질, 건강상태의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Kim, Lee, & Kim, 2007). 이는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간호영역임을 의미한다. 경력수준이 높은 간호사 집단에게는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2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63명을 연구대상으로 간호사의 근무기간 경력수준에 따른 직무 수행도와 중요도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된 단면조사연구이다. 근무기간 경력 수준에 따라 분류된 3개의 간호사 집단

간 간호직무 수행도 및 중요도의 인식 수준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150개 중분류 영역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수행 영역은 직무 수행도 영역 중 영양상태 조사하기($F=3.20, p=.042$), 운동상태 조사하기($F=3.13, p=.045$), 언어적 행동 관찰하기($F=5.16, p=0.006$), 비언어적 행동 관찰하기($F=5.86, p=.003$), 인지상태 관찰하기($F=4.60, p=.011$), 지지하기($F=3.26, p=.040$)였다. 경력이 낮을수록 ‘지지’에 대한 수행수준이 높은 반면, 영양과 운동 상태에 대한 조사와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인지상태 수준의 관찰에 대한 수행 수준이 낮았다.

직무 중요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운동 및 활동 간호하기($F=3.61, p=.028$), 수술 후 간호하기($F=3.32, p=.037$), 배설 간호하기($F=3.93, p=.037$)의 3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5년 이상의 간호경력을 가진 간호사 집단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영역 모두에서 직무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 집단은 지지에 대한 수행도가 높은 반면, 사정 영역(관찰 및 조사)의 수행도와 간호 직무 중 일부 수행 영역에서의 중요도 수준이 경력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 경력 수준에 따른 간호직무 수행도 및 중요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력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즉, 신규간호사 집단에서는 사정 및 수행관련 간호직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경력 간호사 집단에서는 정서적 지지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직무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무기간 경력수준별로 나타나는 직무 수행도 및 중요도 차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직무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원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간호전달체계는 환자 간호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간호업무 수행(Functional nursing)과 해당 간호대상자를 책임지고 간호하는 방법(Team nursing)으로 이원화되어있다. 간호전달체계의 이원화가 간호사 직무 수행도 및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도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References

- Benner, P. (1984). *From novice to expert: Excellence and power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Menlo Park, CA: Addison-Wesley Publishing.
- Choi, J. Y., Kim, H. S., & Park, M. S. (2003). A correlation study of perceived importance of nursing interventions with performance frequency in psychiatric nursing units using the 3rd NIC.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1), 95-103.
- Chu, M. (2000). The lived experience of newly employed nurses: A phenomenological study. *Nursing Science*, 12(2), 17-25.
- Committee on the Work Environment for Nurses and Patient Safety. (2004). *Keeping patients safe: Transforming the work environment of nurs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Elliott, R. J. (1995). *Learning SAS in the computer lab*.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ero, L. J., Witsberger, C. M., Wesmiller, S. W., Zullo, T. G., & Hoffman, L. A. (2009).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new graduate and experienc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1), 139-148.
- Kim, A. S., Lee, E. S., & Kim, S. H. (2007). Effects of telephone intervention as supportive nursing on self-care practices and quality of lif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under chemotherap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5), 744-753.
- Kim, H. J., Kwon, J. H., Kim, J. N., Lee, R., & Lee, K. S. (2008). Posttraumatic growth and related factors in breast cancer survivor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3), 781-799.
- Kim, M. S., Song, J. H., Kim, B. H., & Lee, S. H. (2004). A study on the job analysis for new nurse.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1(1), 15-26.
- Lim, N. Y., Kang, H. S., Suh, M. J., Yi, Y. J., Kwon, S. B., Kim, D. O., et al. (2004). Comparison on perceived importance and frequency of nurse's role behaviors between medical and surg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1(2), 124-137.
- Lim, N. Y., Yun, S. N., Kim, J. E., Lee, Y. S., Jung, Y. Y., & Song, J. H. (2006). Frequency and importance of nurse's job in new graduate nurses working in musculoskeletal ward.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13(2), 108-118.
- Lim, S. B. (2002, June). *The concept and methods of job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eoul.
- Park, S. H., Jung, J. Y., & Bae, J. H. (2007). A development of problem based lear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 Focused on nursing clinical practic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9(1), 21-39.
- Shamian, J., & Inhaber R. (1985). The concept and practice of preceptorship in contemporary nursing: A review of pertinent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2(2), 79-88.
- Shin, Y. H., Hur, H. K., Park, S. M., Song, H. Y., & Kim, G. Y. (2007).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inical nursing practice course for improvement of nursing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1),

- 32-40.
- Spears, J. (2008). Emotional support given by ward-based nurses to sarcoma patients.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12(4), 334-341.
- Tourangeau, A. E., Stone, P. W., & Birnbaum, D. (2003). Hidden in plain view: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nursing care. *Clinical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8(2), 158-163.
- Yoo, M. S., Yoo, I. Y., & Son, Y. J. (2003). Effects of OSCE method on clinical skills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1), 73-80.
- Yoo, O. I. (2000). *Study on the stress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orientation program of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Yoon, S. N., Kwon, H. J., Kim, M. Y., Kim, H. G., Park, J. S., Shin, K. L., et al. (2005). *Study on improving nursing licensure examination*. Seoul: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Nursing Jobs in General Hospitals according to Levels of Work Experience of Nursing Staff

Park, Sunhee¹⁾ · Kang, Hyun-Sook²⁾ · Hyun, Kyung-Sun²⁾ · Kim, Won-Ok²⁾ · Sok, Sohyune R.¹⁾ · Lee, Jia¹⁾

1)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Purpose: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levels of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nursing jobs were explored in relation to levels of work experience. **Method:** The sample was chosen by convenient sampling (N=363) and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was used.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was utilized to examine differences in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nursing jobs among three groups of nurses, divided based on levels of work experience (less than 1 year, 1 to 4 years, and 5 or more years). **Results:** Regarding performance of nursing jobs, novice nurses provided more support for patients, but provided less assessment of patients (i.e., investigation of levels of nutrition and exercise, and observation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and levels of cognition). Regarding the importance of nursing jobs, nursing linked to exercise and activities, and post-operative and excretion care were considered to be less important among novice nurses than among experienced nurses. **Conclusion:** Different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nurses according to levels of work experience. By doing so, it will be feasible to minimize differences in quality of nursing care triggered by different levels of work experience.

Key words : Nursing, Nurses performance evalu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Jia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894 Fax: 82-2-961-9398 E-mail: leejia@khu.ac.kr